학령기 아동의 모애착과 우울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미치는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Depression: The Mediation Effect of Peer Attachment in School Aged Children

민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Min Ha-Yeo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mother attachment. The respondents in this study were 697 school aged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Questionnaires, which required self-reporting by children, were used to investigate 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Sobel test using AMOS 8.0, and SPSS 15.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revealed that peer attachmen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depression. First, mother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peer attachment. Second, peer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ird, mother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as a mediated effect of peer attachment.

Keywords : 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chool aged children's depression

I. 문제제기

청소년기 이전 아동 중 1.0%에서 8.5% 범위의 아동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Lewis, 2002)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우울 경험은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것(Reinherz, Giaconia, Hauf, Wasserman & Paradis, 2000)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전국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

학교 3학년에 이르는 학생 76,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에서,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5%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3분 1이 우울을 경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

[†] 이 논문은 201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Min Ha-Yeoung

Tel: 053-850-3545

Email: mhycd@hanmail.net

에서의 우울은 심리적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한 사람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울은 자기비난, 자기비하 등의 무가치감과 같은 부정적 자기인식, 집중력 장애 뿐 아니라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정적 정서(Carragher, Adamson, Bunting, & McCann, 2009; Davison & Neale, 1982)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깊은 관리가 요구되는 정서다. 그러므로 우울 예방 및 조기 중재는 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의 우울 예방과 중재 활동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을 통해 학령기부터 조기에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이 성인기 우울로 이어지듯이(Hankin & Abramson, 2001; Kuehner, 2003) 청소년기의 우울은 학령기 우울로부터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예방 및 중재 방안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있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의미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자기 상실의 고통에 대한 방어로 발현되는 우울(Miller, 1979)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전할 때 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우울한 집단에서 높은 불안 수준의 애착 관계를 보이거나(Lee, 2004) 어머니와의 정서적 애착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우울을 보인다는 사실(Minzi, & Richaud, 2010; Raja, McGee, & Stanton, 1992; Stemmler, & Petersen, 2005; Yoo, Chung, & Lee, 2012)에서 확인될 수 있다. 아동과 주 양육자인 어머니 사이에 애착이 안정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 부정적 정서 상태인 우울이 보다 쉽게 발달할 수 있는 것은 애착 형성에 필요한 따뜻하고 반응적인 돌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기 가치가 손상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자기 가치는 우울의 중요 요소(Stark, 2002)로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로부터의 승인, 칭찬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 애착을 유발하는 양육행동은 긍정적 자기 가치감보다 자기 비난이나 자기 비하의 부정적 자기 가치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비하적 태도는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 등의 우울(Davison & Neale,

1982)과 연결되어, 보다 높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어머니의 애착과 아동의 우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Han & Kim, 2011; Lee & Min, 2004)이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Woo & Choi, 2004) 등과 연결시켜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살펴보고 있을 뿐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인 애착을 근간으로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어머니-자녀 간 정서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애착을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생애 초기부터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학령기의 주요 사회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학교 내 또래관계 속에서도 발달할 수 있다. 또래는 청소년기 뿐 아니라 학령기에도 가장 주요한 사회적 관계다. 또래로부터 인정을 더 적게 받은 청소년이나 학령기 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우울(Beam, Gil-Rivas, Greenberger, & Chen, 2002; Kim, & Park, 2011)을 보이는 것처럼, 또래로부터 경험되는 애착 역시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Yoo, Lee, & Jung, 2006)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와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감정적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믿음이 또래애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또래애착이 낮다는 것은 또래에게 접근하거나 수용되는 것이 어렵고 또래와 감정적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회의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친구인 또래에게 수용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태도는 우울한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것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이 또래 애착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하나 또래애착은 가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애착에 의해 영향받음은 생애 초기부터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애착의 질에 기초를 제공한다는 Bowlby(1982)의 애착 이론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애착 이론가들은 부모에 대한 기대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의 토대라고 제안하고 있다(Bowlby, 1982; 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생애 초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수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내적 도식으로 작동하면서 일생에 걸쳐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질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안정되지 못한 애착관계는 학교 내 주요 사회적 관계인 또래 관계에도 영향(Allen, Porter, McFarland, McElhaney, & Marsh, 2007; Granot & Mayseless, 2001; Kerns, Klepac, & Cole, 1996)을 미친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안정되지 못한 모애착 관계는 또래애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에 보다 쉽게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이 어머니와의 애착에 의해 또는 또래와의 애착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머니와의 애착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모애착의 영향이 또래애착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석기법인 구조방정식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을 매개적 인과모델측면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구조방정식은 모형 간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통계기법(Bae, 2011)으로 매개적 인과관계를 간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에 [Figure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은 또래애착을 매개로 우울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모애착의 영향은 또래애착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69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 130명(18.7%), 5학년 244명(35.0%), 6학년 323명(46.3%) 이었으며 남이는 362명

[Figure 1] study model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chool aged children(N=697)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Grade	4th	130(18.7)	Mother job	non-job	262(37.6)
	5th	244(35.0)		job	419(60.1%)
	6th	323(46.3)		missing	16(2.3)
Sex	boys	362(51.9)	Income (million won)	300 ≤	377(54.1)
	girls	335(48.1)		300 >	320(45.9)
Mother age	30s	398(57.1)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	381(54.7)
	40s	274(39.3)		2 year college	64(9.2)
	50s	13(1.9)		university ≥	215(30.8)
	missing	12(1.7)		missing	37(5.3)

(51.9%), 여아는 335명(48.1%)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연령대는 30대(398명 57.1%)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하(381명, 54.7%)가 가장 많았다. 한편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더 많았으며, 월소득 300만원 이하의 가정(377명 54.1%)이 300만원 이상(320명 45.9%)의 가정보다 더 많았다.

2. 연구도구

1) 학령기 아동의 우울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Kovacs(1992)의 아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Cho와 Lee(1990)가 번역,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I는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도다. 자기비하(4문항), 신체증상(4문항), 부정정서(5문항), 흥미상실(7문항), 행동문제(7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Han & Yoo, 1994)된 각 문항은 우울 정도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은 '나는 가끔 슬프다(1점)', '나는 자주 슬프다(2점)' '나는 항상 슬프다(3점)'로 구분된 문장 중에서 지난 2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 주는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27점에서 8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은 이 척도의 자기비하, 신체증상, 부정정서, 흥미상실, 행동문제 그리고 전체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차례대로 .75, .75, .70, .76, .76 그리고 .86로 나타났다.

2) 모애착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 중 모애착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Ok(1998)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우리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머니를 믿는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5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의 경우 역산 처리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은 이 척도의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그리고 전체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차례대로 .84, .90, .77 그리고 .92로 나타났다.

3) 또래애착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 (IPPA-R) 중 또래애착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Ok(1998)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걱정해준다.',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구에게 의지한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듣는다',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등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5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 처리 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은 이 척도의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그리고 전체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차례대로 .81, .80, .72 그리고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학 전공의 석박사과정생들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4, 5, 6학년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주 후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총 900부가 배부되었으나, 이중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독립과 종속변인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697(75.2%)부만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 또래애착, 우울 간의 매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5.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Amo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 , GFI, RMSEA, TLI, CFI, NFI값을 살펴보았다. 한편 Sobel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 또래애착, 우울 간 상관관계 및 평균(표준편차)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적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 또래애착, 우울 간 상관관계 및 평균(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변인 간 상관관계 및 변인의 평균(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은 <Table 2>와 같다.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하위 변인 평균(표준편차)를 고려해 볼 때 모애착(4.05 ~ 3.83)과 또래애착(3.59 ~ 3.21)의 각 하위 변인은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였다. 특히 모애착의 각 하위 변인의 평균은 4점 근처의 평균값(4.05 ~ 3.83)을 보였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모와 또래에 대해 애착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모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애착을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울의 각 하위 변인은 1.50대의 평균(1.52 ~ 1.32)을 보였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 경험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변인 정규분포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변인별 왜도는 3미만 값($SSI < 3.0$)이 나왔으며, 첨도는 10미만 값($SKI < 10.0$)이 나왔으므로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Kline, 2005; Moon, 2009). 따라서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이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Table 2〉 Bivariate correla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between variables

Variable	mom1	mom2	mom3	peer1	peer2	peer3	dep1	dep2	dep3	dep4	dep5
mom1	1										
mom2	.85***	1									
mom3	-.54***	-.47***	1								
peer1	.29***	.33***	-.17***	1							
peer2	.40***	.42***	-.31***	.76***	1						
peer3	-.32***	-.34***	.24***	-.76***	-.69***	1					
dep1	-.32***	-.27***	.35***	-.26***	-.31***	.28***	.1				
dep2	-.25***	-.23***	.24***	-.28***	-.29***	.25***	.35***	1			
dep3	-.33***	-.31***	.32***	-.33***	-.40***	.36***	.57***	.42***	1		
dep4	-.37***	-.35***	.29***	-.46***	-.50***	.47***	.56***	.37***	.56***	1	
dep5	-.32***	-.29***	.29***	-.33	-.38***	.38***	.57***	.38***	.55***	.59***	1
Mean	4.05	3.96	3.83	3.21	3.59	3.30	1.32	1.52	1.38	1.46	1.48
(SD)	(.65)	(.80)	(.70)	(.68)	(.63)	(.56)	(.35)	(.40)	(.34)	(.36)	(.31)
Skew	-.86	-.68	.82	-.16	-.15	-.03	1.67	.62	1.25	.99	.57
Kurtosis	.82	.26	1.09	.50	.30	.62	3.39	-.06	1.79	1.14	.27

Note *** $p < .001$

mom1: mother trust, mom2: mother communication, mom3: mother alienation

peer1: peer trust, peer2: peer communication, peer3: peer alienation

dep1: negative self esteem, dep2: physical symptoms, dep3: negative mood,

dep4: anhedonia(lack of interest), dep5: interpersonal problems

2. 측정모델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로 사용된 모애착, 또래애착, 우울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측정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모델의 부합도는 $\chi^2 = 180.56(df=41, p < .001)$, TLI = .95, GFI = .95, NFI = .96, CFI = .97, RMSEA = 0.7(0.6-.08)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나타내

는 RMSEA 최소(0.6) 최대(0.8) 평균이 0.7이어서 최적이라 볼 수 없지만 수용가능하다는 점(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과 모형설명력을 보여주는 GFI나 독립모형 대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TLI, NFI, CFI 등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만족스런 모형 적합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3〉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model	χ^2	df	p	G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TLI	NFI	CFI
	180.56	41	.000	.95	.07 .06-.08	.95	.96	.97

Note GFI = Goodness-of-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NFI = Normal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Figure 2] 는 측정모델의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간 요인부하량은 모두 .5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들간의 상호상관계수는 절대값 .41~.58로 나타났다. 이는 각 측정모델 하의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에 대해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Figure 2) Three fac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3. 구조모델 분석: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 또래애착, 우울 간 매개효과 검증

측정모델을 통해 개념이 적합하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한 후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 또래애착, 우울 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효과모델(A

→C), 완전매개모델(A→B→C), 부분매개모델(A→B→C)의 적합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A→B→C 매개모델을 다음의 두 가지 조건 하에서 평가해야 한다(Bae, 2011). 첫째, A→C 경로를 0으로 제약하는 조건(완전매개모델), 둘째, A→C 경로를 제약하지 않고 추정하는 조건(부분매개모델)을 각각 구조분석 한 다음 두 번째 조건인 부분매개모델이 첫 번째 조건인 완전매개모델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지를 검토한다. 개선 여부는 두 모델간 χ^2 차이검증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만약 매개효과가 있다면 A→C 경로를 제약 모델에 추가하게 되면 적합도가 개선되지 않아야 한다. 즉 두 모델간에 자유도 1에서 χ^2 값이 $\alpha = .05$ 수준에서 3.84이하이고 전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던 A→C 경로는 매개변수가 고려되는 조건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나면 완전매개라 한다. 만약 A→C, A→B, B→C 경로는 예측된 방향에서 모두 유의적이고 완전매개모델과 부분매개모델과의 χ^2 차이가 3.84 이상이면 부분매개모델이라 한다(Bae, 2011). 이를 기초로 <Table 4>에서 1) A→C 경로의 총효과모델, 2) A→C 경로를 0으로 제약하는 조건(완전매개모델)과 3) A→C 경로를 제약하지 않고 추정하는 조건(부분매개모델)의 모델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일단 1) A→C 경로의 총효과모델이 유의적으로 나타났음을 토대로, 매개관계인 A→B→C 모델 2)와 3)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두 모델 모두 GFI > .90, 0.02 < RMSEA < .08, TLI > .90, NFI > .90, CFI > .90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모델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또래애착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이루어진 부분매개모델 뿐 아니라 이 모형에서 모애착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델은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다. 두 모델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으므로 완전매개모델과 부분매개모델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χ^2 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두 매개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42-41)일 때 χ^2 의 차이가 49.94(230.50-180.56)로 $\alpha = .05$ 수준에서 임계치 3.84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델의 차이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직접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모델의 설명력이 좋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매개모델보다 부분매개모델이 더 적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부분매개모델을 중심으로 모수치 추정

〈Table 4〉 Fit indices for Structural Model

model	χ^2	df	p	GFI	RMSEA LO-HI	TLI	NFI	CFI
Total model	57.98	19	.000	.98	.05 .04-.07	.98	.98	.99
full mediating model	230.50	42	.000	.94	.08 .07-.09	.94	.94	.95
partial mediating model	180.56	41	.000	.95	.07 .06-.08	.95	.96	.97

Note GFI = Goodness-of-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NFI = Normal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Figure 3〕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a partial mediating model,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reported

치를 추정하여 경로계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5>와 [Figure 3] 과 같다.

한편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매개모델의 작간접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Sobel 테스트를 통해 모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

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Sobel 테스트는 표준화된 계수와 표준오차 수치를 투입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검증결과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이 연구에서 Sobel 테스트 검증결과는

〈Table 5〉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a partial mediating model

parameter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mom att → peer att	.36	.41	.04	10.32***
peer att → dep	-.14	-.46	.01	-10.55***
mom att → dep	-.08	-.28	.01	-6.97***
dep → dep1	.62	.72	.03	17.95***
dep → dep2	.50	.51	.04	12.68***
dep → dep3	.78	.75	.04	18.54***
dep → dep4	1.07	.78	.06	19.40***
dep → dep5	1.00	.75		
mom att → mom1	1.00	.96		
mom att → mom2	1.03	.89	.04	29.11***
mom att → mom3	-.38	-.56	.02	-16.02***
peer att → peer1	1.00	.89		
peer att → peer2	.89	.85	.03	28.39***
peer att → peer3	-.60	-.84	.02	-27.57***

Note *** $p < .001$

〈Table 6〉 Direct, indirect effect decomposition among path coefficient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mother attachment → peer attachment	.41***	.41***	-
mother attachment → depression	-.47***	-.28***	-.19***
peer attachment → depression	-.46***	-.46***	-

Note *** $p < .001$

Z값은 -7.4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은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서 모애착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애착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과정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해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애착은 또래애착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1, p < .001$). 그리고 또래

애착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직접효과($\beta = -.46, p < .00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애착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직접효과($\beta = -.28, p < .001$)를 가질 뿐 아니라, 또래애착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간접효과($\beta = -.19, p < .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모애착의 영향을 또래애착이 부분매개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대구지역 내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677명을 대상으로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매개적 인과관계 측면에서 살펴본 이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의해 각각 부적인 영향을 받는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모애착이 낮을 때 그리고 또래애착이 낮을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녀의 우울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할 때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Minzi, & Richaud, 2010; Raja *et al.*, 1992; Stemmler, & Petersen, 2005)와 유사한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든 학령기 자녀든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지적이거나 수용적이지 못할 때 아동의 우울은 보다 쉽게 높아질 수 있다.

또래와의 애착 역시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관계에서 수용적이지 못하거나, 위축될 때 우울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Beam *et al.*, 2002; Kim & Park, 2011; Yoo *et al.*, 2006)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Cooley(1902)의 면경자아(McIntyre, 2006)가 의미하는대로 개인적 자아감은 대인간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정서적 연대감을 지지받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즉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아동 자신의 자아감은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부정적 자기 평가가 우울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Stark, 1990)임을 고려해 볼 때 낮은 또래애착으로 인해 손상된 자아감은 보다 높은 우울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모애착은 또래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owlby(1982)의 애착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와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기의 부모-자녀간 애착이 또래간의 애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애착 대상의 전이’를 지적한 Weiss(1982)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며 ‘관점의 위계모델’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를 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Furman과Simon(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애착이 또래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또래애착의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내 어머니 애착의 문제점을 우선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연대하여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의해 각각 부정적 영향을 직접 받지만 모애착의 경우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 영향보다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이 좀더 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또래와의 애착에 의해 보다 많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또래와의 애착에 의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학교나 밖에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아질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공통된 사건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정적 지지와 수용 등 애착 대상으로서 중요한 역할(Nelis & Rae, 2009)을 또래들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살만 되어도 아동은 동반자적 관계를 요하는 상황에서 부모보다 또래를 더 추구하며 12살만 넘어도 흥분된 상태에서 위안을 구하는 대상으로 부모보다 또래를 더 추구한다고 한다(Fraley & Davis, 1997; Hazan & Zeifman, 1994). 이와 같이 학교내 또래 애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또래로부터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다면 우울은 보다 강하게 누적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의 거부 등이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음(Potthoff, Holahan, & Joiner, 1995)을 고려해 볼 때,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정서적 연대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수용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우울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모애착보다 또래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직접적으로 갖는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예방에 있어 가정내 어머니 역할만큼 학교내 또래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 역시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예방에 중요한 요소이나 또래는 보다 파급력 있게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또래애착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또래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또래 애착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애착 증진 프로그램 등이 고려

(Jacobson & Frye, 1991)되고 있지만 또래를 대상으로 또래의 접근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든지 또래의 관점을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교육 등의 또래간 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어머니와의 애착과 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접근해 보았으나,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대구지역 내 4, 5, 6학년에서만 일부 자료수집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단위를 전국 단위로 광역화하거나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모애착, 또래애착, 학령기 아동의 우울

REFERENCES

- Allen, J. P., Porter, M. McFarland, C., McElhaney, K. B. & Marsh, P. (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e, B. R. (201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9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Chong Ram Press
- Beam, M. R., Gil-Rivas, V., Greenberger, E., & Chen, C. (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1*, 343-357.
- Bowlby, J. (1982). *Attachment: Attachment and loss Vol. I*(2nd ed.). New York: Basic Books.
- Carragher, N., Adamson G., Bunting, B., & McCann, S. (2009). Subtypes of depression in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113*, 88-99.
- Cho, S. C. & Lee, Y. S.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4), 943-955.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sons
- Davison, G. C. & Neale, J. M. (1982). *Abnormal psychology*(3th ed). New York: Wiley.
- Fraley, R. C., & Davis, K. E. (1997).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in young adults' close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131-144.
- Furman, W. & Simon, V. A. (1999).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W. Furman & B. B. Brown(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pp. 75-9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not, D. & Mayseless, O.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school in middle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6), 530-541.
- Han, J. A. & Kim, J. H. (2011). The difference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parents'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boys' and girls' depress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1), 67-78.
- Han, Y. J. & Yoo, A. J. (1994).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3), 147-157.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 Psychological Bulletin*, 127, 773-796.
- Hankin, B. L., Mermelstein, R., & Roesch, L. (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78(1), 279-295.
- Hazan, C. & Shaver, P.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1), 1-22.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a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Kingsley.
- Jacobson, S. W. & Frye, K. J. (1991). Effect of maternal social support on attachment experimental evidence. *Child Development*, 62(3), 572-582.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im, A. R., Lee, J. H. & Choi, B. Y. (2010).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gender,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therapy*, 22(3), 843-862.
- Kim, J. H. & Park, K. J. (2011). The influence of the need for peer approval upon levels of children's depression and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1), 83-99.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Guilford.
- Kovacs, M. (1992).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manual North Tanawanda*. New York: Multi-Health Systems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J. G. Schulterbrandt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pp.1-25). New York: Raven Press
- Kuehner, C. (2003). Gender differences in unipolar depression: An update of epidemiological findings and possible explanation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 163-174.
- Lee, H. J. (2004).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attachment styles in persecutory deluded and depressed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2), 381-395.
- Lee, Y. M. & Min, H. Y. (2004). The effects of parent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10.
- Lewis, M. (2002).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3rd ed.)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30-149.
- McIntyre, L. (2006). *The practical skeptic: Core concepts in sociology*(3rd ed). New York: McGraw Hill, 2006.
- Miller, R. A. (1979). Depression and grandiosity as related forms of narcissistic disturbance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6, 61-76.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fifth online survey on adolescents' health behavior in 2009.
- Minzi, D. & Richaud, M. C. (2010). Gender and cultural patterns of mothers' and fathers' attachment and links with children's self-competence, depression and loneliness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80(1), 193-209.

- Moon, S. B. (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7*. Seoul: Haksisa
- Nelis, S. M. & Rae, G.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2), 443-447.
- Potthoff, J. G., Holahan, C. J., & Joiner, T. E. (1995). Reassurance seeking, stress gener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4), 664-670.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aja, N. S.,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Reinherz H. Z., Giaconia, R. M., Hauf, A. M., Wasserman, M. S., & Paradis, A. D. (2000). General and specific childhood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drug disorders by early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2), 223-31.
- Ok, J. (1998).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 Collins, W. A. (2005). Placing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in developmental context. In K. E. Grossmann, K. Grossmann, & E. Waters (Eds.), *The power of longitudinal attachment research: From infancy and childhood to adulthood*(pp. 48-70)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Stark, K. D. (1990). *Child depression: School-based interven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Stemmler, M. & Petersen, A., C. (2005). Gender differential influences of early adolescent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affec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3), 175-183.
- Yoo, A. J., Lee, J. S. & Jung, H. S. (2006).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arent attachment: Effects on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lif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1), 167-181.
- Yoo, H. S, Chung, H. J. & Lee, J. Y. (2012).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on anger expression styl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1-14.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 171-184). New York: Basic Books.
- Woo, H. J. & Choi, J. M. (2004).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 childre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4), 191-200.

접 수 일 : 2012. 08. 04.

수정완료일 : 2012. 09. 11.

게재확정일 : 2012. 10. 12.